

내포 홍예공원, 한국의 센트럴파크로 탈바꿈

도,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5년 3월까지 전면 리모델링 완료

공공청사 정원화 공원과 연계
미술관 등 주차장 지하화하고
도민이 기중한 수목으로 숲 조성

충남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이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거듭난다.

충남도는 공원 동선을 개선해 도시 연결축을 강화하고 수목 식재와 잔디광장 조성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공원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일환으로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5박 7일 포르투갈 등 해외 현지답사에 나섰다.

앞서 도는 2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내포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은 흥성과 예산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공원으로, 27만 4738m² 규모, 자미원과 징검다리 연못 등 연못 2곳, 수경시설, 산책로, 광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홍예공원 내에 충남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2025년 미술관, 2027년 예술의 전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홍예공원은 명소화·차별화 요소 부족, 수목 생육 불량 및 고사, 불편한 동선 체계, 편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홍예공원 조성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을 추진하고 홍예공원 명품화 개념 설정 및 구상, 재정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다.

특히 홍예공원의 세계적 수준 명품공원에 초



우리도 심폐소생술 할 수 있어요

충남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 505명의 수호천사를 활용해 도내 5834개 마을회관과 경로당, 영농협장 등에서 어르신 상대 심폐소생술과 기본 응급처치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65세 이상 노인 심정지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을 위해 김태흠 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은 농한기인 2~3월과 11~12월 집중 실시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흥성군 홍북읍 지동마을회관에서 열린 어르신 상대 심폐소생술 교육.

사진/맹철영

점을 맞추고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도는 도민 헌수목 식재를 통한 도민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참여형 숲 조성 사업(가칭 흥예사랑숲)을 추진하고, 활엽수가 자랄 수 있는 토양 개량, 공원 내 호수 수질 개선, 홍예공원 명칭 변경 검토 등을 추진한다.

또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 등 공공청사와 공원 간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청사 주변 보도블럭 및 시멘트 바닥을 걷어내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 전면 녹화사업을 실시하고, 무장에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기존 충남도서관과 건립 예정인 미

술관, 예술의 전당 주차장 지하화작업을 하고, 노면은 조경과 조각품 등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민다.

아울러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한다. 도청에서 공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육교 또는 터널을 설치해 안전한 이동 동선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24년 4월까지 수목 식재 완료, 2 단계로 공원 테마·편의시설 등 2025년 3월까

지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예산의 수암산과 흥성의 용봉산이 애워싼 27만 4738m² 규모의 홍예공원은 세계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내포신도시 최고의 경관”이라며 “홍예공원 명품화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원 전체 조성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2면〉

/김정원 jwkim87@korea.kr
/공공기관유치단 041-635-3389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도·NH농협·충남신보 협약

NH농협 추후 추가 출연 밝혀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을 위해 NH농협은행 충남본부·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백남성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51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6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이번 신용보증 추가 지원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NH농협은행 충남본부의 특별출연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민선8기 공약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이라고 강조 했다.

백남성 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이례적으

로 큰 규모의 특별출연을 결정했다”라며 “충남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특히 “최근 고물가·고 환율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큰 만큼, NH농협은행이 특별출연금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으며, NH농협은행은 추후 추가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15개 시·군과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취약계층·청년창업자·골목상권·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지원과 041-635-3442

튀르키예 등 지진 피해 성금 기탁

충남도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한다.

도는 2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박상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튀르키예·시리아 지원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예비비 10만 달러를 투입해 대한적십자사 긴급 구호 계좌를 통해 지정 기탁한다.

아울러 도는 2월 28일까지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도 각 실·과와 시·군에 참여를 요청한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54

도정 비전

한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 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충남 남부출장소 개소	2면
3·1절 특집	3면
내포순환버스 운행	5면
일자리 정보	10면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충남의 무명 독립운동가 대거 찾았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2020년부터 시작한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굴된 이들은 역시 3·1 운동 참가자였다. 지난해 찾기 사업을 펼친 아산·홍성도 마찬가지였다. 3·1 운동 참여 사실이 밝혀진 사람이 아산 126명, 홍성 130명이었다. 3·1운동이 우리 민족 대다수가 참여한 유사 아래 최대 민족운동임을 알 수 있다.

연구원이 찾기 사업을 펼친 계기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였다.

한말 이후 우리 민족은 스러지는 국운을 일으키고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항일투쟁에 나섰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모진 고문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다. 연구원은 이 애국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 후손들에게 조상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다.

충남도의 지지와 후원 속에 시군들이 속속 찾기 사업에 참여했다. 연구원은 꼼꼼한 조사를 위해 한 해 2~3개 지자체를 나눠 실시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낀 경우가 많다. 그 중 읍면사무소 서류창고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옛 자료를 눈앞에 대했을 때다.

수형인명부 독립운동 근거

일제강점기 읍면사무소들은 구금된 '죄수'들 명단인 수형인(受刑人) 명부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명부는 행정적으로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된다. 그런데 간혹 먼지에 뒤덮혀 남아있기도 해, 우리를 기쁘게 했다. 당시 직원들의 게으름 혹은 무관심이 고마울 뿐이다. 지금껏 조사한 시군의 1~3곳 읍면동에 꼭 그런 곳이 있었다.

또 찾기 사업의 주요 자료는 수형인명부를 폐기하면서 남긴 목록표이다. 이름·나이·죄명·형기 등 간략한 기록만 있지만 독립운동 소명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 해당자의 독립운동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법원 판결문이다. 죄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기록된 독립운동가가 대부분이다. 경찰 등 공권력과 충돌이 있으면 소요죄



수형인명부, 판결문서 이름·죄명 등 기록 확인

공적조서 작성해 서훈 신청 현재까지 78명 서훈

충남도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 현황

2023년 2월 현재

시군	유공자 현황	실시 연도	발굴	서훈 신청 (신청 시기)	서훈 확정
부여	104	2020년	163명	92명(2020.09)	25명
		2022년 추가 찾기	262명	140명	
공주	136	2020년 충남대 수행	98명	34명(2021년)	15명
예산	90	2020년	140명	87명(2020.11)	38명(2021.04)
서천	40	2020년	43명	21명(2021)	
천안	106	2021년	455명	195명(2021.12)	
서산	212	2021년	542명	214명(2021.11)	
아산	147	2022년	277명	183명	
홍성	247	2022년~2023년	318명	232명	

* 이외 시군 유공자 현황 : 논산 70명, 보령 46명, 금산 45명, 청양 258명, 당진 26명, 태안 2명, 계룡 0명, 대전·연기 135명 (당시 대전·연기(세종)는 충남에 속했음으로 독립유공자를 충남에 합산하고 있다.)

로 적용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신문 자료도 중요하다. 기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사건 개요와 죄명,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보도했기 때문이다.

2020년 찾기 사업 첫해 부여·서천·

예산을 조사했다. 예산에서 140명을 찾았는데 그해 11월 예산군이 국가보훈처에 87명을 서훈 신청했다. 참으로 빨빠른 대처로 결과는 눈부셨다. 서훈 신청자의 43%인 38명이 국가유공자가 됐다. 국가보훈처도 놀라 이듬해 9월

서는 의병을 폭도로, 의병장은 수괴(도적 두목)로 불렸다.

독립유공자 서훈 받기

최종 서훈을 받으려면 '찾기' 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판결문, 수형인명부 등의 자료를 확인된 독립운동가를 향토사학자 혹은 독립운동가 후손을 접촉하여 독립운동 관련 증언을 구술 채록한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가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 확인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발굴 독립운동가 목록 작성하고 이중 보훈처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독립운동가 선별한다.

'광역 2위' 명예 지키기

올 1월 현재 충남의 독립유공자는 1674명이다. 1위 경북도(2447명)에 이은 2위이다. 3위 경기도로 1485명, 4위 전남은 1454명이다.

충남도는 찾기 사업의 효과로 3위 경기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거의 200명 차이다. 충남도와 경기도의 인구수를 볼 때 큰 격차를 실감 할 수 있다.

전남도의 증가가 눈에 띈다. 경기도 유공자 수치에 근접했다. 전남도는 2021년 긴급히 우리의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을 벤치마킹해 많은 예산·인력을 투입,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서훈 신청까지 도가 나서서 둡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우리 연구원의 3년에 걸친 사업 경험이 있어 큰 걱정이 없다. '찾기 베테랑'이 된 연구원들이 매년 2~3개 시군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

정을경 책임연구원(문화박사, 한국사 전공)은 "연구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시군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연구원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충남의 많은 숨은 독립운동가들 공적이 인정돼 서훈자가 대폭 늘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이 완료된 충남 지역에서 서훈 신청한 인원은 총 1198명. 이중 3개 시군 신청자 213명 중 78명(36%)이 서훈을 받았다. 나머지 시군의 985명이 최종 서훈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지속 가능한 발전, 탄소중립경제
충남이 가장 먼저 합니다!

한센충남 대안민족기념관

탄소중립경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힘쎈충남의 앞선 정책입니다.

탄소중립경제
기후변화 대응
성장동력 발굴
지속 가능한 발전

탄소중립경제, 충남이 가장 먼저 합니다!

피해 회복과 미래 도약의 탈석탄 시대를 준비합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위원회
한센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 개최(2023.1.31.)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탄소중립경제, 충남이 가장 먼저 합니다! 한센충남 대안민족기념관



김태호 충남지사와 15개 시군·군수들이 23일 열린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뒤 기념사진을 찰영하고 있다.

15개 시장·군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와 시군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이

도-시군, 충남 지방정부회의서 공동결의문 발표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방산 클러스터 유치 결의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석탄발전 폐지지

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촉

구했다.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또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및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은 올해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남에 따라 지역업체의 수주율 향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충남 방산클러스터 사업 유치 결의

문은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는 물론 전국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충남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운영지원과 041-635-3677

/탄소중립경제과 041-635-2622

/미래산업과 041-635-2233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자격증, 인문, 외국어 등 40개 강좌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대학본원과 내포분원에서 2023년 1기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신청 접수기간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며,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lei.cns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강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강좌 선택의 폭을 넓혔고, 내포분원 운영 프로그램이 대학본원에도 신설됐다.

실제 정규 강좌는 ▲직업능력 및 자격증 ▲인문교양 ▲외국어 ▲문화예술 ▲생활체육 ▲기타 등 6개 분야 40개

강좌가 진행된다.

내포 분원의 경우 직업능력·자격증 분야는 소리모음 동화구연, 수납전문가(2급), 실버인지놀이 지도사, 커피바리스타(2급), 심리미술치료사 등 5개 강좌가 마련돼 있다.

인문교양 분야는 알기 쉬운 동양철학 교실, 시낭송, 한문속담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부동산재테크(NPL&경매), 시창작과 시감상 등 5개 강좌가 개설된다.

외국어 분야는 기초영어회화(여행영어), 천천히 배우는 생활 중국어2, 기초일본어 강좌 등이 꾸며진다.

문화예술 분야는 유화, 보자기공예와 전통인형옷 만들기, 한문서예, 바이

올린, 아름다운 우리 그림 민화, 힐링 판소리, 포크기타 등 13개 강좌가 준비됐다.

생활체육 분야는 명상호흡, 라인댄스, 다이어트 벨리댄스, 힐링댄스스포츠, 플라워&페플 요가 등이 개설된다.

대학 본원에서는 ▲직업능력·자격증 : 탈모 예방을 위한 셀프 두피관리, 알차게 배우는 천연염색 ▲인문교양: 부동산재테크, 재미있는 교양한문(사자소화) ▲문화예술 : 한문서예, 니를 찾아가는 힐링 민화, 기초부터 배우는 캘리그래피, 도브테일 짜맞춤 가구 등을 모집한다.

/충남도립대 041-635-6770

도정게시판



구기자 신품종 3월 초까지 분양

충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는 병해충에 강한 화강과 수확량이 많은 화수 등 신품종 12종을 분양한다. (사진)

구기자 신품종 분양은 3월 초까지 신청받아 보급할 계획이며, 분양받길 원하는 농가는 대행업체인 금송농원에 신청하면 된다.

구기자 재배 관리, 병해충 방제, 시비 관리 등의 정보는 유튜브에서 '구기자 영농교육'을 검색해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 및 구기자연구소(☎041-943-111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386

치의학연구원 충남 유치 협력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는 2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공동 협력하고, 치의학 연구 활성화 및 치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공약으로 천안아산 연구개발(R&D)집적지구 내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보건정책과 041-635-4301

농가형 가공상품 평가단 모집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3월 15일까지 '충남 농가형 가공상품 소비자 평가단'을 모집한다.

충남 농가형 가공상품 소비자 평가단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시제품과 농가형 가공상품의 시장성 및 상품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동 가공시설로, 도내에는 총 11개소 있다.

농가형 가공상품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조리·가공 등의 과정을 거친 식품이다.

평가단 신청은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82

수리시설 개보수 국비 958억 확보

충남도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원공 분야 49지구 644억 원, 용·배수로 분야 40지구 314억 원 등 도내 88지구에 국비 958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도가 확보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958억 원은 전국 예산

6300억 원의 15.2%로, 전국 최대 규모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와 이미 확보한 올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의 국비 1251억 원을 더해 총 147지구에 국비 2209억 원을 지원,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기존 노후 양·배수장 및 저수지 개·보수, 용·배수로 보수·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업정책과 041-635-4022

이동수리소서 점검 받으세요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월 28일까지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도내 어촌계, 내수면 어업계, 수산단체 등이며, 신청은 도 수산자원 연구소 누리집(<http://www.chungnam.go.kr/fisheryMain.do>)이나 수산관리과 및 태안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하면 된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63

농촌 체험 농가 발전 방안 모색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7~21일 충청남도 농촌체험협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협의회 추진 계획(로드맵) 수립'을 주제로 조직력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농업·농촌 지원 빌글 등 교육을 통해 농장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험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매주 화요일마다 추진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협의회의 비전과 분과 구성, 분과별 운영 방향, 시군 체험협의회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방법 및 마케팅 방안 등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86

태안 UV랜드 'K-드론' 성지로 자리매김

드론 관련 규모·시설 전국 최고
지난해 개관 후 이용 문의 줄어들어
드론길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육성

[태안] 충남 태안군이 'K-드론'의 선도 자치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시설로 개장 1년을 맞는 태안UV(Unmanned Vehicle·무인비행체)랜드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태안 UV랜드는 남면 태안 기업도시 일원 11만 5703㎡ 면적의 부지에 총 95억 원을 들여 조성된 드론 등 무인기 전용시설이다. 지난해 3월 개관 후

12월까지 약 5300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는데, 전국적으로 드론 인구가 아직 많지 않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광활한 서산 AB지구 간척지에 자리잡은 UV랜드는 드론을 마음껏 뛰울 수 있는 공간이다. UV랜드가 위치한 남면 부님호 일대는 2021년 일찌감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면서 UV랜드의 활용성은 더욱 높아졌다.

소규모 공항이나 기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탁 트인 공간에는 무인조종 멀티센터를 비롯해 400m 길이의 활주로, 광장, 1만 6800㎡에 달하는 드론 교육

장이 자리했으며, 국제대회 규격의 드론 레이싱 서킷과 멀티콥터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페드 등이 조성돼 있다.

지난해 4월에는 UV랜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드론 전문 교육 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 연계한 드론 교육 실시가 가능해졌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55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현재도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준공 이후 주요 기관과 기업들의 참여 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국 24개 기관·기업이 태안군UV랜드에서 연구 및 실증에 나섰다.

/태안군 제공



태안 UV랜드 드론 체험장 모습



백제보에서 만난 가창오리 '군무'

[부여] 가창오리는 시베리아 레나 강 인근의 작은 습지에 흘러져 번식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대규모 강과 호수에서 월동한다. 전 세계의 약 99%가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니 가창오리는 겨울철새의 대명사다. 시베리아에서는 한 쌍씩 번식하기 때문에 대규모 군집을 이루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녁 노을이 질 때면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특성을 보여 '가창오리 군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광경이다.

/도민리포터 자유재

홍주읍성 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 본격 조성

올해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
전통음식 체험코너 등 구성

[홍성] 홍성군이 홍주읍성 일원에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추진중인 체험형 커뮤니티 공간인 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이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은 홍성을 오관리 110-17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1,724.40㎡로 조성된다.

지하는 사무실, 회의실, 공방체험실로 주로 업무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상1층은 전통음식 체험, 시식, 특산품 판

매소로 전통음식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지상 2층의 전망 쉼터는 홍주읍성 홍화문(남문)이 전면으로 보이는 탁트인 조망이 기대되고 있으며, 전통놀이 체험, 카페, 쉼터 등 편의공간으로 구성해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민을 맞이할 계획이다.

군은 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전

통양반문화체험공간이 본격적인 추진

에 들어가고, 2017년부터 추진해 왔던 '홍주읍성 북문 문루 복원'과 '북문 동쪽 성벽 복원'이 올해 8월과 11월 각각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등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이용복원사업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홍

주읍성 정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과거 경기도 평택에서 서천에 이르기까지 22개 군현을 관할한 목사 고을인 홍성군은 홍주읍성 정비사업에 발맞춰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인 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 건립을 위해 2019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사업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 및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보류로 다소 지연되었던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와 설계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시작했고 올 2월부터 본격 추진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달려간다.

/홍성군 제공

소규모 여행객 대상 '관광택시' 운영

6시간, 10시간 코스 제공
요금 50%는 예산군 지원

[예산] 예산군이 소규모 여행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서비스인 '예산 관광택시' 활성화에 나선다.

관광택시는 초행길이거나 운전이 서툰 여행자들에게 관광명소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돋고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 등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가족, 친구, 연인이 원하는 관광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실속 있는 여행이 가능하다.

관광택시 이용요금은 6시간 코스 10만원, 10시간 코스 16만원이다. 요금의 50%는 군이 지원하고 나머지 50%의

요금과 관광지 입장료, 주차비, 초과요금 등 기타비용은 이용객이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가족 단위 또는 개인별 자유여행으로 관광 추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언택트 관광서비스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택시는 관광안내소 사전 예약 후 6시간 코스, 10시간 코스 중 하나의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예산군 제공

3월부터 당진 콜택시비 무료

교통비 절감 및 품질 개선

[당진] 3월부터 당진콜택시의 콜비 무료화가 전면 시행된다.

그간 당진콜택시는 대기업에 대항해 '당진콜택시'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면 콜비를 내지 않도록 하는 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같은 토종 콜택시의 자구 노력과 경영개선을 적극적으로 돋기 위해 시는 올해 콜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앱을 통한 호출뿐만 아니

라 전화를 통해 호출하는 경우에도 콜비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번 콜비 무료화 결정에 따라 당진콜택시의 호출 건수 증가 등 지역 콜택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콜택시 이용자 교통비 절감 및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콜비 무료화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당진콜택시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 '당진콜택시(승객용)'을 설치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 제공

2023 NONSAN STRAWBERRY FESTIVAL

논산딸기축제

- 세계 딸기 엑스포를 향한 달콤한 유혹 -

2023. 3. 8. (수) ~ 3. 12. (일) [5일간]

개막 및 비전선포	2023. 3. 8. (수) 18:00
장소	논산시민공원 및 시민운동장 일원(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110)
주최	논산시
주관	(재)논산문화관광재단
후원	충청남도·육군항공학교·논산관내농협

주요 프로그램

논산딸기축제에서 진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청정 딸기 수확 체험

청정 논산딸기를 산지에서 직접 수확하고 맛볼 수 있는 체험



딸기 디저트 카페

딸기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카페



헬기 보고미 헬기 태고!

헬기를 타고 아름다운 날정호수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카자니아 고!

체험과 놀이를 통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자니아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그외 행사

딸기 홍보·판매, 문화공연, 웰기전시, 머거리부스, 푸드트럭, 공예체험, 딸기캐이밍등기, 메타버스 이벤트 등

논산 딸기·젓갈 아시아인 입맛 공략

호치민에 '통상사무소' 개소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사례

지역 기업 해외진출 뒷받침
현지 시장 정보 공유 기반 마련

[논산] 충남 논산시가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주 베트남 논산통상사무소'를 열었다. 국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베트남에 통상사무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통상사무소를 열며 베트남을 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동남아시아 시장공략의 교두보로 삼을 예정이다.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으로 수출입 상담, 현지 시황 정보 파악 등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통상사무소장은 아시아 한국 경제인의 연합체인 아시아한상(韓商) 종연합회 부회장이자 베트남 남부연합회장인 김정민 JM그룹 대표가 맡는다. JM그룹은 2012년 베트남 현지에 설립된 이후 정관장, 고려은단과 같은 한국 제품의 베트남 진출을 중개해 온 유통업체다.

시는 JM그룹과 손잡고 앞으로 3년간 딸기·젓갈·배·고구마와 같은 논산 농식품 26억원어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아시아한상 베트남 남부연합회와 '행복 상생 업무협약'을 하고



18일 열린 주 베트남 논산통상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올 10월 아시아한상대회를 논산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백성현 시장은 "동남아 지역 중요

무역 파트너인 베트남에 통상사무소를 열어 논산 기업, 농산물이 세계로 뻗

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믿음과 신뢰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시 제공

장항 맥문동 꽃축제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10건 선정해
총 120만 원 상금 지급

[서천] 서천군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제1회 장항 맥문동 꽃축제'를 앞두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특히 군은 이번 장항 맥문동 꽃축제를 군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모 기간은 16일부터 3월 3일까지며, 군은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서천군 공공시설사업소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선정된 10명에게는 총 1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상금은 ▲최우수 1명 30만 원 ▲우수 2명 각 20만 원 ▲장려 3명 각 10만 원 ▲노력 4명 각 5만 원이다.

이온숙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창의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공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행사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장항 송림산립욕장, 장항 구도심 일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천군 제공



활짝 핀 서천 장항 맥문동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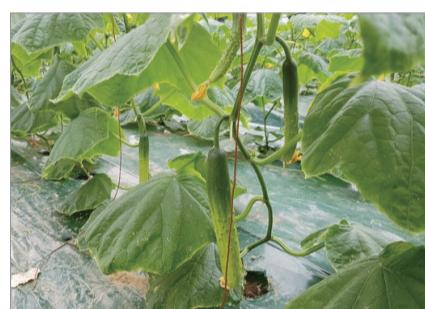
천안 '하늘그린 오이' 본격 출하

수분 많고 씹는 맛 뛰어나

[천안] 전국 1위 생산단지인 천안의 대표 지역특화작목 '하늘그린 오이(사진)'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다.

올해 첫 출하된 '하늘그린 오이'는 지난달 6일 첫 정식한 오이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활용한 가온 재배해 전년보다 1일 일찍 출하가 시작됐으며 오는 3월 중순까지 출하될 예정이다.

병천·동면·수신·목천·풍세 등에서 재배되는 '하늘그린 오이'는 지난해 말 기준 180㏊(시설재배 170㏊, 노지재배 14㏊)에 2만7267톤을 생산했으며 생산



액 318억 원 규모로 전국 1위의 생산 단지다.

하늘그린 오이는 수분이 많고 육질이 단단하여 아삭아삭 씹는 맛이 뛰어나고 오이 특유의 향이 강해서 봄철 입맛을 돋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

가 많다. 현재 가락동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다기오이(100개) 1박스의 가격은 10만4000원~11만5000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박스당 4만6000원 가량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한파 등의 영향에 의한 생육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 진단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설하우스 토양관리와 오이 생육진단 컨설팅 등 농민 서비스 지원 확대로 고품질 오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인공지능 챗봇상담사 운영…민원 등 안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

[보령] 보령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 시스템인 '보령시 챗봇 상담사'를 운영한다.

챗봇 상담사는 민원 서비스나 각종 행정 관련 정보 등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365일 24시간 제공하며, 민원 안내, 관광·문화·체육, 교육, 교통·환경, 복

지·보건 등 9개 분야의 질문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다.

챗봇 상담사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결할 수 있는 AI 상담 전화 시스템도 갖추었다.

이번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은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는 번거로움

을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하고 빠른 민원 상담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챗봇과 AI 상담 전화 시스템의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AI 학습 강화를 통해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ICT 기반 민원행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보령시 제공



무령왕 초상화

무령왕의 리더십 “인자하고 너그러워 민심이 따랐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리더십을 지녔기에 비상시국의 나라를 다시 강국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다시 탐정으로 돌아가 기록을 찾아봅시다. 삼국사기에 무령왕에 대해 “인자하고 너그러워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글자만 유추하건데, 무령왕의 리더십은 ‘부드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록에 동성왕이 죽고 그가 즉위할 때 국인(國人)들에 의해 옹립되었다고 하는데, 평소 국인들과 소통을 잘 하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왕인 동성왕과 비교해 봐야겠네요. 기록에 의하면 동성왕은 무도하고 백성에게 포학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동성왕 다음에 국인들에 의해 옹립된 왕은 동성왕과 다르겠죠. 아마 무령왕은 인자하고 너그러

독단적인 정치에 빠져있을 때, 무령왕은 부드러움과 소통으로 백성과 귀족들의 인심을 얻었을 거예요. 소통은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통을 위해선 내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등한 소통이 가능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령왕은 자신의 판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고민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무령왕이 백제를 중흥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매 순간마다 처절한 고민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네요.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무령왕 서거·성왕 즉위 1500주년,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5) 부드러움으로 백제 부흥 이끌다

여러분 드디어 501년 40세의 늙은 나 이에 무령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지난 회 때 무령왕은 기록이 없어 짧은 시절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밀씀드렸죠. 그런 그가 드디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가 즉위할 당시는 문주왕 곤지 삼근왕 동성왕이 비명횡사하는 등 왕족들의 수난기였어요. 왕실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국 가적으로도 비상국면이었구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령왕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무령왕 6년에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자 왕은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하였고, 10년에는 명을 내려 제방을

수리하게 하고 농토로부터 이탈하여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귀농시킴으로써 농업기반을 확충시켰어요.

그 경제적 기반으로 그동안 수세에서 벗어나 고구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때로는 반격을 가하여 여러 차례 승리했습니다. 한편 백제 영역 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반자치적인 지위를 누리던 영산강 유역의 세력 집단들이 확실히 백제 중앙의 통제를 따르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어요. 우리는 흔히 백제사의 부흥기를 성왕대로 알고 있지만 그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무령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리더십을 지녔기에 비상시국의 나라를 다시 강국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다시 탐정으로 돌아가 기록을 찾아봅시다. 삼국사기에 무령왕에 대해 “인자하고 너그러워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글자만 유추하건데, 무령왕의 리더십은 ‘부드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록에 동성왕이 죽고 그가 즉위할 때 국인(國人)들에 의해 옹립되었다고 하는데, 평소 국인들과 소통을 잘 하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왕인 동성왕과 비교해 봐야겠네요. 기록에 의하면 동성왕은 무도하고 백성에게 포학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동성왕 다음에 국인들에 의해 옹립된 왕은 동성왕과 다르겠죠. 아마 무령왕은 인자하고 너그러



천안 병천면 아우내독립만세운동기념공원 '그날의 함성' 조형물. 1919년 4월 1일, 갈전면(현 병천면) 아우내 장터에는 약 3,000여 명의 장꾼들이 모여 3단계로 만세 운동을 진행하였다. 만세운동은 4월 1일 오후 1시 무렵 시작되었다. 3000여 명의 군중이 '대한 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에 태극기를 달고 이를 앞장세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누비는 큰 시위를 벌였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현병들은 주재소를 향하여 오는 군중을 향하여 총을 쏘아 많은 사상자를 냈다.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대한독립만세” 충남에 울려 퍼진 함성

격동의 충남 100년

충남에서 벌어진 3·1운동



고종황제 장례행렬.

1919년 1월 21일 고종 승하

고종 장례일 3·1운동 기폭제

비폭력 만세운동 전국 확산

공주, 강경 등 충남 전역 전개

3월 29일 천안 대대적인 만세운동

3000여명 참여한 충남 최고 기록

3·1운동의 배경

나리를 빼앗기고 뒷방 신세가 된 고종은 그 오명을 씻으려는 듯 극비리에 몇 가지 계획을 추진했던 것 같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다던지, 심지어 중국 베이징으로의 망명 이야기 같은 것이 그것이다. 만약 고종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을 벌인다면 일본으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은밀히 퍼져 나갈 즈음 1919년 1월 21일, 갑자기 고종이 승하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로 되어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 바로 독살설. 그 날 밤 궁녀 두 명이 가져온 죽혜를 마셨는데 바로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민씨 척족세력의 중심인물인 민영휘 등이 염을 했는데 그의 일기에 고종 시신의 상황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고 한다.

경련을 일으키고 몸이 부어올랐으며 입안의 이빨이 모두 빠져 있었다는 등등. 이 정도면 충분히 독살의 의혹을 살만 했다. 물론 의혹의 대상은 일본 또는 친일파.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는 고종의 독살의혹을 알리는 병보가 붙여졌고, 가뜩이나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족 지도자들은 고종의 장례날인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월슨 대통령이 세계 1차 대전후 ‘민족자결주의’를 선언한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민족자결주의.

이렇게 하여 3·1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퍼져 나갔는데 3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106만명이 참여하여 사망 7509명, 구속 4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3·1운동을 계기로 그 해 4월 중국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우리 헌법 전문에도 이와 같은 3·1 정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충남에서 벌어진 3·1운동

우리 충남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확산된다. 1919년 3월 13일 오후 12시 40분 충남 연기군 전의(全義)에 이어 3월 14일 공주 유구에서 일어났는데 마침 이 날이 장날이어서 500여명이 모여 만세를 외쳤다. 또 일부는 유구의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재소를 습격한 것은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황병주를 일본 경찰들이 연행해 갔기 때문에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 졌다. 급보를 받고 공주에서 달려온 현병과 경찰들은 칼로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찌르는 등 난폭하게 진압을 하고 23명을 검거했다. 3월 14일 유구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진 다음 날인 3월 15일, 그리고 4월 1일 충남도청이 있는 공주에서 300여명이 모여 함성을 터뜨렸다. 공주 영명학교(현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도 나누어 주었다.

강경에서는 3월 10일 오후 3시 옥녀봉에서 봉화불을 밝히는 것을 신호로 500여명이 강경 시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때 일본 경찰은 17명을 검거하여 진압했는데 그러나 강경읍민들은 3월 20일 또다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봉기했다. 오히려 이 날은 시위군중도 1천명으로 늘어났고 미국인 선교사 한 명도 참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강경읍민들은 4월 3일에 다시 600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일본 현병과 경찰에 의해 한 명이 사망하고 7~8명 부상을 입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일본 경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강경 시장을 폐쇄 조치하고 곳곳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실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경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은 인근 지역 두마, 연산, 은진, 광석으로 번져 일본 경찰을 당황케 했다. 당시 대전에서도 3월 16일



▲이수욱 독립유공자.
/공훈전자사료관

◀공주 영명학교 교사였던
김관희(좌)와 김재면 김회수.
/디지털공주문화대전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오전 6시경 덕수궁 함녕전에서 68세로 사망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이지만 아직까지 고종황제의 사망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고종의 갑자스러운 죽음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공주 지역 3·1운동의 첫시도는 3월 7일이었고, 3월 12일 독립만세운동 전개, 본격적인 만세운동은 3월 14일 유구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4월 1일 공주 영명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수욱은 1919년 3월 13일 연기 전의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이수욱은 고종의 국장(國葬) 참례를 위해 상경하여 3·1운동을 목격한 후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한다. 이수욱을 선두로 시장 군중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전의 면 각처를 활보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인동 장터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져 한 사람�이 죽고 다섯 명이 구속되었다.

조치원에서는 장날인 3월 30일 조치원 청년단을 중심으로 수천명이 밤늦게까지 햇불 시위를 하는 등 격렬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3·1독립만세운동은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는데 그럴수록 일제의 진압도 점점 잔인해졌다. 4월 1일 공주 정안면에서는 면사무소 앞에 800명이나 모였는데 이들은 주재소를 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사태가 심각했다. 특히 천안지방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이끈 아우내 만세운동에 앞서 목천, 입장, 직산 그리고 천안시내에서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목천에서는 3월 14일 오후 4시 목천 보통학교 학생 120명이 운동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교문 밖으로 나오다 4명이 체포됐다.

3월 20일에는 입장면에서 직산에 있던 광산의 광부 등 70여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는데 경찰은 남자 40명과 여자 10명을 체포하며 경찰 진압했다. 3월 28일에는 이른 아침인 오전 7시 30분부터 직산 일대에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직산에 있는 광산 광부 200명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재소를 습격하는가

하면 경찰의 경비 전화선을 끊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8명이 체포되었다. 3월 29일에는 천안 시내에서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이 벌어 졌는데 무려 3000명이나 참여 하는 충남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26명이 체포됐다.

충남 전체가 대한독립을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부여 3월 7일, 서천 3월 29일, 흥성 3월 7일, 4월 5일 청양 정산, 4월 4일 예산, 온양 3월 11일, 서산 3월 11일, 면천과 온양 3월 10일, 당진 등등. 대개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를 하였고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계에서 적극 참여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청양 정산에서는 권흥귀가 일본 현병들에게 정면으로 대들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는데 그의 장례를 치르는 날, 상여 뒤를 따르는 인파가 넘치자 이들을 향해 발포하여 6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정말 충절의 땅, 충남의 정신을 보여준 3·1만세운동이었다.



변평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충남 산불 절반 이상 봄철에 발생

봄철 산불주의보! 3-5월 집중 발생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발생한 1611건의 산불 중 절반 이상이 봄철(3-5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절반 가까운 815건(49.1%)이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총괄 현황

연도	전체 건수	산불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소실면적 (m²)
			계	사망	부상		
연평균	2,517	166	2.5	0.8	1.7	90,552	262,230
계	25,171	1,661	25	8	17	905,522	2,622,307
2022년	2,157	61	2	1	1	323,352	758,866
2021년	2,015	39	0	0	0	35,214	68,833
2020년	2,075	67	2	1	1	8,042	67,041
2019년	2,193	103	3	1	2	52,853	101,986
2018년	2,605	142	1	1	0	41,460	101,777
2017년	2,775	203	0	0	0	144,327	492,209
2016년	2,825	227	3	0	3	97,596	179,844
2015년	3,031	333	2	0	2	82,184	269,413
2014년	2,838	294	6	1	5	103,139	290,194
2013년	2,657	192	6	3	3	17,355	292,144



월별 발생 현황

연도	계	봄	여름	가을	겨울
2022년	100	58.9	11.9	10.8	18.4
계	1,661	978	197	179	307
2021년	61	36	2	6	3
2020년	39	25	3	3	8
2019년	67	48	3	5	11
2018년	103	61	9	6	27
2017년	142	63	36	8	35
2016년	203	135	24	19	25
2015년	227	115	40	31	41
2014년	333	181	58	59	35
2013년	192	136	6	15	35



발화 원인별

연도	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배불 실화	성묘객 실화	건축물 화재	미상	기타
2022년	100	3.3	23.1	26.0	13.0	5.1	0.3	7.9	21.4
계	1,661	54	383	432	216	85	5	131	355
2021년	61	5	7	10	10	0	1	7	21
2020년	39	2	5	8	9	1	0	4	10
2019년	67	4	6	12	21	3	0	5	16
2018년	103	1	23	34	12	2	0	8	23
2017년	142	6	35	39	21	7	0	7	27
2016년	203	3	49	48	43	9	0	15	36
2015년	227	10	57	67	16	21	2	13	41
2014년	333	10	67	103	39	23	0	32	59
2013년	192	5	57	39	17	11	0	15	48



관할 소방서별

연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2022년	100	7.7	8.6	7.6	3.4	10.3	6.7	0.5	10.4	5.6	7.8	4.4	5.5	9.2	4.6	7.8
계	1,661	129	143	126	56	171	111	8	172	93	130	73	91	152	77	129

2023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



충남도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들어 읍·면·동 이상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현장에는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산불종사원을 1357명 배치하고 감시카메라 95대를 이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불 발생 시 진화차 213대와 동력펌프 209대 등 진화 장비를 이용해 조기 진화할 계획이다.



216개

읍·면·동
산불방지대책 본부 설치



1,357명

산불감시원 등
산불종사원 배치



95대

산불 상시감시
카메라 설치



213대

산불 진화차



95대

동력펌프

그래픽 | 박건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개학 전 준비하세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비를 먼저 지불한 뒤
1일 3회 이용분까지 환급받는 형식



이용대상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환급방법

- 사용 전 반드시 교통카드를 개인별로 편의점에서 일정 금액 충전
- 다음달 10일부터 17일 사이에 앱의 '내 선물함'에 마일리지로 환급

※ 만 13세 이하 또는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 등 대리인이 앱을 설치해 등록

사용방법



누리집에 접속 후 회원가입 읍면동사무소에서 카드 발급·수령 '충남알뜰교통카드' 앱에 카드 등록
※ 주소지가 충남이 아닌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카드 발급이 제한

2023년 충남테크노파크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채용인원 28명
접수기간 2023. 3. 6.(월) ~ 3. 16.(목)
접수방법 온라인(<https://ctp.recruitlab.co.kr>)
문의사항 (재)충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인사혁신팀
☎ 041-589-0611/0613

우리의 몸이 영양소를 얻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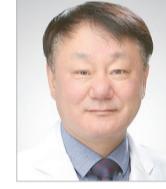
공공의료원 칼럼

식물은, 우리 몸의 흡수될 수 있도록 간단한 형태로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된다. 흡수된 영양소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에 쓰이는 복잡한 단백질이나 인지질을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은, 원래 식품에서 쓰이는 용법 그 자체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는 못 한다. 내가 소머리국밥을 먹었다고, 나의 뇌에 바로 영양분이 가서 머리가 좋아질 수는 없다. 내가 도가니탕을 먹었다고, 내 무릎 연골이 바로 재생될 리도 없다. 내가 로얄제리를 먹었다고, 내가 여왕벌이 될 리도 없는 노릇이다. 깨끗하고 좋은 식품을 골고루 먹어서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골고루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우리 몸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사람은 계속해서 먹어야한다. 물을 5일 정도 못 마시거나, 밥을 한 달 정도 못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일 게다. 이 땅에서 난 작물을 먹어서 흡수한 영양소로 내 몸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내 몸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필자도 흥성에서 먹고 마신지 3년이 되어가니, 3년 전 내 몸에 비교하여, 이제는 거의 흥성에서 먹은 식품에서 얻은 영양소로 내 몸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은 먹을 것에서 얻은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할 수는 없다. 내가 만일 돼지 껌데기를 먹었다면, 돼지 껌데기의 콜라겐이 내 몸에 그대로 흡수되어 나의 피부로 갈 수는 없다. 내가 먹은 돼지의 콜라겐은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되어 흡수된다. 이 흡수된 아미노산으로 내 몸의 콜라겐을 만들어서 나의 피부의 탄력함을 유지한다. 내가 먹은 글루코사민이나 도가니탕의 콜라겐이 나의 관절의 글루코사민이나 콜라겐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 내가 먹은 글루코사민이나 도가니탕의 콜라겐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내 몸으로 흡수된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한다. 우리가 먹은 모든 음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그 자체로 좋은 제품이다. 우리가 편식을 하여서 모자라는 영양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만 먹어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선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풍부히 얻을 수 있도록, 편식하지 않고 많은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혹시나 모자라는 영양소가 생기는 부분을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다.



김진용
홍성의료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일자리 정보

※문의 - 충청남도일자리종합센터 ☎ 041-330-4972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이지바이오(본사)	기타 경영지원 서비스 관리자	1	041-581-9298	연 3,266만원 이상	논산	A+행복한 주간보호센터	시설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1	041-734-4578	월 201만원 이상
천안	굿모닝오에스주식회사	대형마트 판매원	2	041-551-5112	월 270만원 이상	보령	서연산업	제조 단순 종사원	3	041-939-7589	시급 9,620원 이상
천안	(주)대한전기안전공단	전기안전 기술자	1	041-579-9923	월 201만원 이상	보령	주식회사신흥기공	용접 사상원 및 보조원	1	031-432-8970	연 3,500만원 이상
천안	아리랑푸드	제조 단순 종사원	3	041-566-0010	월 210만원 이상	보령	제이앤웰니스(주)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1	041-935-7007	월 210만원 이상
아산	(주)이슬루션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3	041-543-0573	월 250만원 이상	보령	주식회사영흥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1	041-939-3952	연 4,400만원 이상
아산	(주)드림텍	자재·구매 사무원	1	041-589-4615	연 4,000만원 이상	계룡	홍성안심요양원	시설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3	041-631-8898	월 226만원 이상
아산	(주)에이아이티	자동차 도장기 조작원	2	041-547-0552	연 3,000만원 이상	계룡	고운주식회사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6	041-642-9877	월 220만원 이상
아산	삼주화학건설(주)	건물 도장공	2	041-562-7233	월 300만원 이상	계룡	(주)서인디지탈	컴퓨터 설치·수리원(컴퓨터 A/S원)	1	042-551-3582	연 2,500만원 이상
당진	(주)명륜철강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1	041-354-8801	월 300만원 이상	계룡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	쇼핑몰택배 준비원	2	070-7707-8233	연 2,460만원 이상
당진	주식회사원테크코리아	소방시설·설비 시공 기술자	2	041-362-3838	연 2,800만원 이상	홍성	에코민건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조작원	2	041-333-8005	시급 9,620원 이상
당진	대일물류주식회사	중·대형 화물차 운전원(트레일러 포함)	1	041-352-5527	월 350만원 이상	홍성	(주)현창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조작원	2	041-333-8005	시급 9,620원 이상
당진	(주)굴렁쇠할인마트	매장 계산원	1	041-357-8279	월 210만원 이상	예산	(주)이수카본	기타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	041-337-5332	월 230만원 이상
서산	대호토건주식회사	경리 사무원(건설)	1	041-664-2115	월 220만원 이상	예산	한마음양식	어업 단순 종사원	2	041-675-8510	월 235만원 이상
서산	에이엠텍주식회사	일반기계 조립원	2	041-631-7729	연 3,000만원 이상	태안	아미코골프(주)	기타 텔레마케터	1	041-670-0303	연 3,100만원 이상
서산	(주)코넥	청소원	1	041-689-0817	월 217만원 이상	태안	태현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1	041-675-9981	월 220만원 이상
서산	용성아희뜰어린이집	영양사	1	070-7711-5275	월 235만원 이상	서천	대주산업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	041-973-9855	연 4,500만원 이상
공주	대한예수교장로회 공주중앙교회	기타 건물 관리원(공원, 종교시설 등)	1	041-855-0691	월 270만원 이상	서천	(유)대호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	041-955-1731	연 3,600만원 이상
공주	(주)동해기계항공	자재·구매 사무원(기계·자동차·금속)	1	041-851-1541	연 2,718만원 이상	부여	농업회사법인 두일TMR	제조 단순 종사원	2	041-835-0770	월 210만원 이상
공주	(주)자연과환경	로더 운전원(페이로더 운전원)	1	070-4351-6824	연 3,000만원 이상	부여	소부리영농조합 가공공장	제조 단순 종사원	1	041-834-1335	월 201만원 이상
공주	다래울한의원	간호조무사	1	041-857-5575	월 201만원 이상	금산	달이의꽃금 주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	041-751-5737	월 220만원 이상
논산	(주)노아산업	인쇄기계 조작원	2	042-544-6678	월 250만원 이상	금산	(주)가온	지게차 운전원	1	041-752-9953	연 2,900만원 이상
논산	농업회사법인하이푸드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	041-732-4070	연 4,000만원 이상	청양	청양실버요양원	사회복지사	1	041-943-1588	월 205만원 이상
논산	온채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1	041-732-3976	시급 9,620원 이상	청양	주식회사뉴콘	제조 단순 종사원	1	041-942-7500	월 270만원 이상

2023.2 문화달력

자료제공/충남문화재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족뮤지컬 <피터팬 PETER PAN>	
헨젤과 그레텔		<p>기간: 2023.02.11.~2023.02.19. 시간: 12:00 요금: 20,000원(네이버특가: 12,000원) 장소: 홈플러스천안신방점소극장 문의: 041-552-2080</p>			<p>시간: 11:00 요금: 5,000원(커피 포함) 장소: 공주문화회관 소공연장 문의: 041-840-2204</p>		
26	27	28	<p>시간: 19:30 요금: S석 2만원, A석 만원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041-661-8023</p>				
<p>달이 참 밝습니다- 이동연 초대 개인전 기간: 01.04.~02.26. 시간: 10:00~ 장소: 복합문화공간 모나무르 갤러리 더 퍼플 4관 문의: 041-582-1004</p>			<p>여민락(與民樂) 기획공연 '모차르트와 떠나는 동물의 사육제' 기간: 10:30 요금: 무료 장소: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 문의: 041-746-5950</p>				
<p>옥상달빛! 소란을 만나다 기간: 17:00 요금: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장소: 공주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041-840-2204</p>			<p>기억사무소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찾아드립니다 기간: 2023.12.16.~2023.02.28 시간: 00:00 요금: 무료 장소: 거래의집 고객지원센터 문의: 041-560-0500</p>				
<p>청년예술동아리 '입니다' 개인전 기간: 02.11.~02.26 시간: 10:00 장소: 신불당아트센터 2층 M갤러리 문의: 1533-8711</p>			<p>김난현 개인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에서 먹나요 기간: 02.01.~02.26. 시간: 11:30 장소: 갤러리현(천안시 봉정로 17-1) 문의: 041-576-4988</p>				
<p>Nam Heon Kim 2023.2.1~2.26 길은 산속 물결을 누가에서 먹나요</p>			<p>•2022 소장품 상설전 이응노, 그리다 기간: 2022. 12. 06. ~ 2023. 03. 05. 시간: 10:00 ~ 18:00(월, 설 연휴(1.21~24) 휴관) 장소: 이응노의집(충남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문의: 041-630-9232</p>				
<p>•에꼴드 아미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기간: 2022. 10. 24. ~ 2023. 03. 28. 시간: 10:00 ~ 18:00(월 휴관) 장소: 당진 아미미술관(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문의: 041-353-1555</p>			<p>•2022아미마켓 - 상상력에게 展 기간: 2022. 11. 28. ~ 2023. 03. 28. 시간: 10:00 ~ 18:00(월 휴관) 장소: 당진 아미미술관 문의: 041-353-1555</p>				
<p>•젊은 거장, 그리고 봄 일정: 3월 30일(목) 시간: 19:30 장소: 공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요금: 전석 10,000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 할인, 2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문의: 041-856-0778</p>			<p>•젊은 거장, 그리고 봄 일정: 3월 30일(목) 시간: 19:30 장소: 공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요금: 전석 10,000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 할인, 2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문의: 041-856-0778</p>				

늘 우리를 비추는 태양과 별을 마주하다

도민이 소개하는 충남 구석구석

지난해부터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천문학에 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과 도전은 상상만으로도 근사한데요. 국내 시민천문대 가운데 최대 천체망원경을 갖춘 칠갑산천문대 ‘스타파크’에서 태양과 별의 신비를 마주해봅니다.

칠갑산천문대는 충남 청양군 도립공원 칠갑산(561m) 중턱 한티고개길 인근에 2009년 7월 시민천문대로 개관했습니다. 고대 삼국시대 백제의 진산으로 사랑받은 칠갑산은 우주



칠갑산천문대에서 304mm 굴절망원경으로 태양의 흐점을 살피는 관측객.

만물의 생성원리인 풍(風), 수(水), 화(火) 등 일곱 가지(七)와 천체운행의 원리인 육십갑자의 유품인 갑(甲)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우주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는 천문대와 일맥상통하는 곳입니다.

2월의 밤하늘에는 겨울철 별자리가 선명한데 우선 지구의 유일한 위성으로 ‘띠방아 찡는 토끼’ 등 수 많은 전설을 품은 달(Moon)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달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천체망원경을 사용하면 지표면의 모습까지 상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며 꿈을 간직했던 것처럼 청정한 청양의 밤하늘 아래 만물의 근원인 우주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신비로운 천체를 관측하는 기쁨을 체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민리포터 장군바라기

사서들의 서재



〈사이보그가 되다/김초엽, 김원영 /사계절/2021〉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뜻하는 사이보그는 20세기 이전부터 문학작품의 테마가 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을 뜻하는 AI의 능력과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면서 사이보그와 결합한 인공지능의 영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기계사이에서 인간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

사이보그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다.

「사이보그가 되다」는 김초엽과 김원영 작가가 콜라보로 출간한 책이다. 두 작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본인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보청기와 휠체어를 사용해왔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많이 알려진 김초엽 작가는 후천적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를 사용하고, 김원영 작가는 골형성부전증으로 휠체어를 탄다. 각자의 몸을 둘러싼 새로운 테크놀로지와의 관계를 상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인간과 사이보그에 대한 경계에 대한 질문들과 함께 현재 장애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매우 진지하고도 흥미롭게 이야기해 나간다.

인간의 몸은 과학기술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서로 다른 신체와 감각, 기술과 환경이 결합해 재설계 한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를 상상해 본다. 그리고 사이보그의 사전적 정

의를 넘어 인간과 과학, 기술, 자연, 환경 그리고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이보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의 뒤에 실린 대담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두 사람의 대화가 펼쳐진다. 평소에는 보청기를 잘 착용하지 않는 김초엽은 휠체어를 신체의 일부로 느끼며 그 미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김원영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고, 김원영은 장애인 공동체에 속해본 경험이 없는 김초엽 작가가 스스로 체화한 장애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에 호기심과 놀라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두 작가가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면서 책을 읽는 사람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신배재 사서

“농업은 가치 생산하는 것… 기술·시장·유통 공부해야”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하진이네 버섯뜰에’ 김형래씨

“농업은 작물 재배, 수확, 가치 생산 모두 중요”

품질 좋은 농산물 재배,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집중

충남 서산에서 겨울철 표고버섯 수확이 한창이다. 진한 향과 영양만점인 표고버섯은 일년 내내 수확이 가능한 작물이다.

충남 서산 해미면에 딸 아이 이름을 따서 농장 이름을 짓고 땀과 정성이 가득 담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청년농부를 만났다. ‘하진이네 버섯뜰에’ 대표 김형래(33) 씨는 올해 5년차 농부로 표고버섯 재배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책임진다.

서산의 목초지에 위치해 있어 물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농약 없이 재배한 친환경 표고버섯이다. 표고버섯은 참나무 텁밥을 압축

시켜 만든 배지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자란 표고버섯은 4~5일 만에 수확해야 한다.

현재 버섯재배사 10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하는 표고버섯만 연 200t에 달한다.

김씨는 돈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대신 친환경 농업을 위해 독립을 선택했다. 초창기 경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패 역시 모두 자양분, 성장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표고버섯 작물을 선택하고 관련 교육과 선도농가를 찾아 현장 실습을 하면서 재배기술을 익혔다. 시장조사, 마케팅 등 분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했

다. 청년농업을 꿈꾸거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농업에 뛰어들기 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



김형래 대표가 표고버섯을 선보이고 있다.

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수확물 납품의 실패는 온라인, 직거래 등 유통 판로 개척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첫 수확물을 도매시장에 납품했으나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허무함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며 “소비자 직거래를 목표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로를 넓여나갔다.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섯 수확을 담당하던 근로자 4명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있었다.

앞이 깜깜했다. 4시간 간격으로 수확해야 하는데 수확시기가 늦어지자 손바닥만하게 자라기도 했다. 그

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단계별 목표를 수립·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을 하나하나 그려나가고 있다. 올 하반기 부터는 체험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표고버섯은 물론 인근 마늘 등 작물을 활용한 체험의 장을 마련, 제공하는 방안이다. 나아가 배지생산센터, 종자

연구 및 개발 센터 운영 등도 구상 중이다.

최근에는 서산시 4-H연합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청년 농업인 단체인 4-H는 농업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선후배 농업인들과의 소통은 큰 도움이 된다. 예비 청년 농업인들도 농업기술 센터와 4-H연합회 등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농업은 재배와 수확을 넘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재배기술은 물론 시장조사, 유통 등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당진 최고령 축구인 채영석 씨 “축구는 인생의 낙”

위암 수술 후 골드FC 입단

[당진] 83세의 고령임에도 채영석 씨의 허리는 꽂꽝하고 눈빛은 살아있다. 15살 때부터 꾸준히 운동한 덕인지, 그는 늘 건강했고 계속 건강할 줄 알았다.

채 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살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은평구축구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축구를 하는 열정을 보이며 활동했다. 한때 MVP로 선정되기도 하고, 최다득점상, 우수선수상 등을 훅쓸기도 했다.

그러던 그는 77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건강 때문에 2019년 한적한 당진으로 이사를



왔다. 새로 터를 잡은 당진에서 잠시 쉴 법도 했지만, 그는 축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우연히 골드FC의 회원 모집 공고가 적힌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고 지체 없이 축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골드FC는 60~70세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의 나이는 이미 77세

였다. 나이가 많아 회원 가입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71세라고 나이를 속이기도 했다.

인승두 골드FC 전 회장은 “원래 축구회 입단은 실력보다 인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큰형님을 처음 보는 순간 첫 인상이 너무 좋았다”며 “차에 운동복과 축구화 등을 구비해 놓은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경기장을 응원하러 따라다니는 아내 정재분(78세) 씨는 “이 사람은 사는 나이 오로지 축구뿐이라 말릴 수가 없어요”라고 전한다.

그는 “여유롭고 인심 좋은 당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을 차며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당진시대 제공

이웃들의 어두운 곳을 찾아 돋는 ‘쌍용 100인회’

[천안] 천안쌍용100인회(회장 박일현)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생활용품 지원은 물론, 후원금까지 꾸준히 봉사하는 단체이다.(사진)

초대 정태선 회장부터 현재 박일현 회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물품과 전자제품, 후원금을 기부하며 천안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비추는 한줄기 빛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0년 쌍용100인회로 출범해 2007년 회원자격을 천안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름을 천안쌍용100인회로 바꾼뒤 지역개발, 환경, 체육, 흥보분과를 조



직해 집수리봉사, 김장김치, 백미, 연탄, 라면, 장학금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달 중순에도 회원들과 자녀 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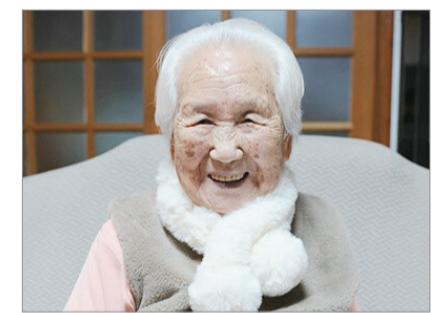
홀로 사는 노인 가정을 방문해 곰팡이로 얼룩진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열악한 화장실과 주방을 개선하는 작업을 했다.

/천안신문 제공

“윤봉길 의사가 나를 여동생처럼 여겼어”

봉산 최고령 유화열 어르신

장수비결은 종이접기와 채식



이민조건에 따라 미혼자녀 넷을 데리고 떠났다.

한국과 미국에서 7남매 자녀들이 넣은 아들딸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 증손자만 23명이다. K리그 포항스틸러스에서 현역 프로축구선수로 활약하는 이승모 선수도 증손자다.

어르신은 2019년 남편과 사별하자 43년 동안의 이민생활을 정리해 귀국했다. 남편의 유해는 고향집 인근 선산에 모셨다. 장남 이양선씨 부부가 농사지으며 노모를 모시고 있다. 미국에 살 땐 한국의 자손들이 전화와 편지, 인터넷으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걱정했고, 귀국한 뒤로는 미국의 자손들과 직접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해 문자와 사진 등을 주고받는 일이 작은 기쁨이 됐다.

어릴 적 고향에 대한 기억에서 윤봉길 의사가 등장한다. “윤봉길 의사 집에 자주 놀라갔어. 그 집에 가면 한쪽은 공부방, 맞은 편은 기거하는 방이 있었지. 윤 의사가 나를 여동생처럼 여겼어” 1908년생인 윤 의사와 1922년생인 어르신은 ‘14살’ 차이다. 대화를 들던 장남 이양선(77)씨가 “윤 의사 집과 어머니 고향집이 가까워 자주 왕래했다”고 거둔다.

어르신은 4년 전만 해도 미국 시민권자였다. 남편이 1977년 38년 동안 몸담은 우체국에서 정년퇴임한 뒤, LA에서 의사로 생활하던 시동생 초청으로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당시

손자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다.

/무한정보신문 제공

가야산은 알고 있다

내포칼럼



편세환
서산문화원장

본래 산은 명산(名山)과 영산(靈山)이다. 명산은 기암괴석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산이 명산이고, 영산은 경관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산의 기운이 많은 생명을 보듬어 떠여 살리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신령스러운 산이 영산이다.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님들은 영산에는 반드시 제단을 만들어 때때로 제를 지내 왔다. 과거 내포의 가야산에는 나라에서 제를 올렸으며, 현재까지 각 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제를 지내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었던 가리왕 산은 명산이지만 영산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올림픽 고유제를 태백산에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가야산의 가야(伽耶)라는 이름은 불교에서 말하는 봇다 가야에서 기인된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역에 가야산이 있다. 특히 내포의 가야산에는 원효봉이 있고 원효암도 있으며 백

여 개의 사찰과 암자가 있었던 불교의 성지다.

내포의 영산 가야산은 어디에서부터 뺨어 왔는가?

금북정맥의 한 줄기가 충청도 내포(內浦) 지역을 향하여 힘찬 기세로 달려왔다. 속리산에서 출발하여 광덕산, 성주산, 오서산, 백월산, 덕승산을 거쳐 가야산에 이른다. 가야산의 최고봉인 가야봉(678m)에서 북쪽으로 석문봉을 거쳐 한 줄기는 상왕산, 동암산, 간대산에 이르고, 다시 한 줄기는 석문봉에서 북동쪽으로 옥양봉, 수정봉에 이른다. 흔히 가야산을 상왕산이라 호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상왕 산은 전체 가야산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의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야산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고 참나무 등 큰 잡목은 그리 많지 않았다. 능선 따라 나무 밑에는 나뭇잎들이 융단처럼 깔려있고 불쑥불쑥 솟아오른 곳을 헤집으면 틀림없이 노란 싸리벗이 낙엽 속에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있었다.

보릿고개라 했던 봄철에는 아침 일찍 동네 아낙네들이 짚으로 엮은 구력을 메고 삼삼오오 가야산으로 향했다. 여인들은 온종일 산속을 누비며 각종 산나물과 버섯을 채취하여 머리에 이고 저녁때에야 집으로 향했다. 산나물을 넣고 밥을 하거나 죽을 쑤어 끼니를 때우는 서글픈 풍경이 봄철마다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가야산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인재를 길러내

는 영산이다.

2차대전 말기 일제는 전쟁물자인 기름 보급을 위하여 가야산의 노송에 큰 피해를 주었고, 1945년 8월 15일 느닷없는 광복과 더불어 입산 통제가 허술해진 틈을 타 인근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산으로 달려들어 수백 년 된 노송들을 남벌하여 팔감으로 시장에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한때는 군부에서 후생사업이란 명목으로 소나무를 벌목하여 귀중한 우리

한편 가야산의 아름다운 계곡을 시(詩)로 읊은 구곡(九曲)이 있다. 즉 병계 윤봉구와 석문 윤봉오 형제가 지은 가야구곡(伽耶九曲)은 관어대(觀魚臺), 옥병계(玉屏溪), 습운천(濕雲泉), 석문답(石門潭), 영화답(映花潭), 탁석천(卓錫川), 와룡답(臥龍潭), 고운벽(孤雲壁), 옥랑폭(玉梁瀑) 등이다. 또 직암이철승이 운산 고랑동에서 지은 고랑구곡이 있는데 귀암(龜巖), 청풍대(淸風臺), 열천(列泉), 탁영계(濯瀛溪), 일

는데 이 산에 백 개의 암자를 지으면 모두 망한다는 어느 도인의 말을 무시하고 백번째 백암사를 지어 그 후 모든 암자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가야산은 슬픈 역사도 지니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하하자 경찰은 보도연맹을 통하여 공산 분자를 소탕하였고, 또한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퇴로가 막힌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1950년 9월 27일과 28일 우의 인사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다. 또 9월 30일에는 반대로 우익들이 좌익을 학살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즈음 가야산을 중심으로 서산, 당진, 예산, 홍성 등 4개 군에 남아있던 일부 인민군과 지역 공산당들이 가야산에 숨어들어 자기들끼리 자칭 해방구를 설치하고 장기간 은거하면서 밤이면 가축을 잡아가고 식량을 탈취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에 4개 군에서 경찰을 중심으로 민간토벌대를 조직하여 공비소탕 작전을 수차 실시하였다. 이때 사살되거나 불잡힌 공비들은 대개 지역 공산주의자들로 이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가야산은 아픈 역사를 품고 있다.

가야산이 품고 있는 사찰과 암자 기

타 문화유적과 유물들은 우리 충청남

도의 귀중한 유산이며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보전 관리해야 할 자산이다.

가야산은 내포의 영산으로 이 시대

를 사는 우리는 가야산을 정성으로 가

꾸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

내포 가야산은 생명 지켜주고 인재 기른 영산 백여개 사찰과 암자, 유적, 유물의 문화 유산

”

의 유산이 손실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석문집(石門集 : 김기석 지음)에 의하면 가야산은 아름다운 절경의 계곡이 99개나 된다고 한다. 대표적인 계곡으로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마애암 존불상과 보원사지가 있는 강당계곡(講堂溪谷)과 고랑동 계곡이 있으며, 해미면 산수리의 수원동 계곡(水源洞溪谷),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와 옥계리에 있는 가야동 계곡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곳은 여름철 휴양지로 인기가 높다.

감로(一鑑瀨), 견심대(見心臺), 벽옥담(璧玉潭), 용폭(龍瀑), 백암(白巖) 등이 있다.

약천 남구만의 영당이 있었던 수원동 계곡은 누군가가 이 일대의 아름다움을 친미한 수석절승구곡(水石絕勝九曲)이 있다. 그 외에도 가야산에는 기암괴석의 절경이 많아 전국 각지에 서 등산객과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

또 한 가야산이 품고 있는 국보 84호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은 백제의 미소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가야산의 대표적 사찰은 개심사, 문수사, 일락사, 보덕사 등 여러 사찰이 있

충남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기대하며…

출입기자 칼럼



나운규
충청투데이 차장

“아산만에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이끌 베이밸리 메가시티(Bay Valley Megacity·이하 베이밸리)를 건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가 공동으로 제시한 베이밸리 건설 사업 공약을 접한 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먼저 정체될 수 있는 충남 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4차 산업의 한 획을 그을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기대감이 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면서 포퓰리즘 공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테슬라, 넷플릭스 등 이름 만 들어도 알만한 공룡기업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경제 거점이 조성된다면 사업 대상지인 충남과 경기

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 미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너지효과까지 기대된다.

반면 사업 대상지가 두 개 광역자 치단체, 8개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다보니 사업을 이끌어갈 구심력이 약화될 수 있고, 도로·항만·경제자 유구역에 우량기업 유치까지 광범위 해 자칫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듦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당시 공약을 함께 제안한 경기지사 후보의 낙선으로 후자(後者)로 기울어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후 베이밸 리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 면서 생각은 조금씩 전자(前者)로 바뀌었다.

지난해 9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만나 베이밸리 추 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양(兩) 도는 베이밸리 건설을 위한 9개 세부사업을 구체화했다.

민선 8기 1호 결재로 ‘베이밸리’ 에 서명한 김태흠 지사는 관련 조례 를 만들고, 취임 후 첫 도 조직개편 과 함께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베이밸리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베이밸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지난 지선 경쟁자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소극적

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거쳐 대권 도전에 나섰던 김동연 지사가 포용력을 발휘해 경쟁자의 공약을 이어받은 것은 긍정적이다.

이제 남은 김동연 지사의 적극성 부분은 김태흠 지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베이밸리는 아산만을 끼고 있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 등 아산만 일대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미 베이밸리 사업 대상지에는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반도체(아산·평택)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아산), 삼성SDI(천안), LG디지털파크(평택), 현대차(아산), 기아차(화성), 쌍용차(평택)와 서산 대산 4사(한화토탈에너지스·롯데케미칼·LG화학·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당진) 등 23만여 기업과 34개 대학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국의 10.6% 규모인 204조원의 지역내총생산(GDP)을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다.

김태흠 지사의 의지와 간절함이 성공 추진의 마지막 퍼즐이 될 김동연 지사의 적극성을 이끌어내 아산만에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특수반 아이들(1)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21)



소중애 동화작가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의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놀랐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살아왔는가 가슴이 아팠다. 연민은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던가? 나와 특수반 아이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특수반 아이들은 7명이었다. 3월 2일, 한 아이 엄마가 찾아와 싸울 듯이 물었다.

“선생님, 특수아동지도 교사자격증 있어요?”

없다고하자 그날로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 시켜 6명이 된 것이다. 특수반 아이들의 1/2는 시설보호 어린이들로 학습지진아들이고 나머지 반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픈 손가락들이었다. 부모들은 특수아 교육에 대한 책도 많이 읽은 엘리트들로 신경이 날카로웠다. 나는 아이를 전학 시킨 엄마를 충분히 이해했다.

교실이 넓어 바닥에서 둥굴기도 하고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했다.

지인이 아기 토끼를 두 마리 줘 교실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를 처음 키워봤는데 요것들이 꼭 강아지 같았다. 졸졸 따라다니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놀자고 내 빨가락을 톡톡 건드렸다. 아이들도 토끼를 좋아했는데 토끼들은 아이들이 가까이만 가면 도망갔다.

“토끼야, 토끼야.”

애달프게 따라다녀도 소용없었다.

“왜 토끼가 선생님만 좋아해요?”

아이들은 화를 냈고 내게 불만을 터뜨렸다.

아이들에게 물었다. 그려자 아이들은 겁을 내면서 손사례를 쳤다.

“난 안 가져 갔어요.”

“몰라요.”

눈을 비껴 뜨고 구석으로 도망가는

제342회 임시회 66개 안건 처리 후 폐회

민선8기 정책 추진계획 점검
5분발언·현안질의 등 통해
도정·교육행정 방향 모색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14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 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민선8기 전반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기 중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특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

이 발언대에 올라 ‘장애인체육회 육상 종목 육성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 이번 임시회부터 처음 실시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안장헌 의원(아산5)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 등 서민 경제 악화에 따른 전도민 특별에너지 지원금 지급 제안 등 3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한 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3개 건의·결의안도 채택했다.

홍성현 제2부의장(천안1)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듣고 민생 현안에 대한 각종 안건도 심도있게 심의했다”며 “지난 해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낸 것처럼 올해도 도민 행복과 지



충남도의회는 21일 제 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6 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한편, 다음 회기는 3월 28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필두로 조례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섭단체대표 연설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의정활동 다짐”



국민의힘 김응규 대표

공공기관 통폐합 당위성 강조

도정 주요사업 지원 약속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김응규 의원(아산2)은 21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을 통해 “충남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표된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하여 “방만 운영과 논공행상 논란으로 문제되던 공공기관 중에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도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정책결정 기능은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현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지원 ▲아산만관 순환철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 마련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충남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통합’ 이전에도 상호 통합·협력 추진 요청 등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강조했다.

“충남도, 자화자찬 아닌 도민 중심 도정 펼쳐야”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대표

내포첨단산단·충청지방은행·육사이전 등

공약사업 구체화 및 신속 추진 강조

충남도의회 조철기 원내대표(아산4)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을 통해 소통없는 민선8기 도정을 질타하

고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민선 8기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등 5개의 공약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 공약에서부터 이미 담보상태인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약사업이자 오랜 충남도의 숙원사업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 ▲육군사관학교 이전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충남형 M버스노선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이전 등은 “도민과 소통 없이 진행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충남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학력향상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온체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학력진단 등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 및 결의안

고통겪는 양봉농가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이 대표 발의한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선태 의원

김 의원은 “전문가와 양봉농가는 꿀벌의 집단 실종의 주요 원인을 기후 변화와 꿀벌응애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양봉농가의 전체적인 위기를 개인의 농가가 대응해 나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

며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양봉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봉농가 전체의 정확한 피해 파악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꿀벌 집단 실종 농업재해 인정 ▲효과적인 꿀벌응애 구제제 개발 ▲가죽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양봉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주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 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의료 인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적정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국민 의료안전

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도농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사체를 도입해 지역내 공공·필수의료 분야 복무 등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면서 국회는 계류 중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충남 유치 촉구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논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충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 집적지로, 특히 자동차,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방위산업 연관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면서 “방산기업 및 전환가능 제조기업(307

개), 연구·인증기관(14개), 인력양성·창업지원 기관(31개)이 두루 갖춰져 있는 등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충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충남도의회 48명의 의원들은 튀르키예·시리아의 빠른 복구를 염원하며 성금을 모금했고 21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박상규 사무처장에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통과

산하기관 25곳→18곳 축소

도지사·기관장 임기 일치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 조례안 5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25개 공공기관은 18개로 통폐합되고, 본원은 내포신도시로 이전된다.

조례안에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곳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



화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된다. 또 평생 교육진흥원·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 진흥원’으로, 사회서비스원·청소년진흥원·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합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도 충남연 구원으로 통합한다.

도의회는 이날 도지사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도 가결

했다. 도 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5분발언

“충남 건설업체 수주 확대 지원 마련”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 1)은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충남도 건설업 하도급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충남도 건설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착공 이후에도 하도급 참여실태를 파악하는 등 밀착관리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경영 지원 등 지역업체의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충남지역에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대거 진행될 예정인 만큼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금강대교, 부여군 랜드마크로 건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창의적인 부여군 랜드마크, 신금강대교 건설’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신금강대교는 운송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교량을 건설하자는 충남도와 단순한 운송수단 기능을 넘어 자전거 도로망과 연계하고 경관이 우수한 교량으로 건설해 관광 및 여가 지원으로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여군의 견해 차이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신금강대교가 부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장애인체육회 육상종목 신설창단”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 2)은 ‘장애인체육회 육상종목 신설창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직장인운동경기부를 대전은 5개 팀, 충북은 3개 팀을 운영하는 데 반해, 우리 충남은 2개 팀만 운영하고 있다”며 “주변 광역단체와 비교해 아쉬움이 크고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천군장애인체육회가 지역의 우수한 장애인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 ‘육상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제안했음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결국 무산됐다”며 “도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충남에 뿌리를 둔 장애인 체육인이 타 시도로 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확대와 육상종목 신설창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가족힐링센터, 이용자 편의 증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 3)은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 센터’ 건립과 공간 재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 센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한 시설”이라며 “그러나 설계도면 상에 나타난 각 실 배치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금이라도 실별 배치도를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구성된 장애인 체험공간이 각광받고 있다”며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통받는 유부도 주민의 삶 개선 호소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유부도 주민들은 식수 부족에, 운항 여객선도 없는 열악한 삶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익현 의원은 “유부도는 육지와 상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아 지하에서 끌어 올린 바닷물을 정수 처리 후 식수로 해결하고 있다”며 “이 또한 공급 한계로 집마다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등 주민들에게 빗물받이통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며 개탄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섬 주민들에게 교통과 식수는 생존을 위한 최대 숙원사업”이라며 “충남도는 정부, 서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통권과 수돗물 공급망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긴급현안질문

도민 특별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 제안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아산 5)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으로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는 220만 도민에 대하여 특별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매우 적절하지만,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전 도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 어려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삽교역 신설과 관련해 도비와 군비의 예산부담 협의 과정에 있어 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광역의회의 역할

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와의 연계성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포로 옮기려는 것은 어떠한 장점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당사자, 담당부서, 시군과의 현실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대표발의자인 복지환경위원회 양경모 의원(천안 11)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과 발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적사항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대표발의자인 양경모 의원을 비롯해 이종화·이재운·이지윤·박기영·박정수·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민수·신영호·이용국·박정식·윤희신 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일기쉬운 의회용어사전

본회의

본회의가 무엇인가요?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로
충청남도의회 42명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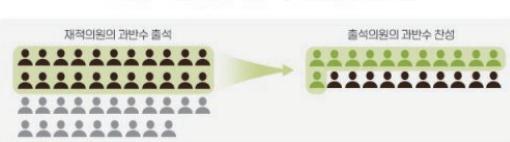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일기쉬운 의회용어사전

본회의

전부 참여하지 못하면 의결하지 못하나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일기쉬운 의회용어사전

본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적인 의회의 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납니다.



2023.1.1 시행

내고향 충남을 살리는 이주 특별한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자



충청남도



충청남도민



주민 복리 사업 시행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소멸지역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